금정총림, 다라니기도 禪悅에 빠져

〈선열〉

경선 스님 "종합수행도량, 다양한 수행법 제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는 소리가 밤 깊은 산사를 가득 메웠다. 불자들은 다라니 기도로 추위도 잊은 채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며 미동하지 않았다. 기도를 마치자 불자들은 함께 해준 스님과 도반에게 박수를 보냈다. 기도의 환희를 느낀 얼굴엔 눈물 자국과 웃음이 가득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신묘장구대다라니 일만독 불사를 시작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설법전 문을 열고 다라니 기도를 진행 중이다. 다라니 정진 두 번째 시간인 12월 4일, 설법전에는 200여 명의 불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기도 시작 전 집전하는 스님의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천천히 천수경을 외웠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순서가 되자 끝없이 반복했다. 불자들의 좌복 앞에는 천수경과 함께 자녀들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어린 학생들도 보였다.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따라와 눈을 감고 합장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1시간 30분쯤 지나고 기도가 마무리되자 참가 대중은 마음을 다해 절을 하며 발원했다.

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은 다리니 기도 시간을 열어 준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도 정진으로 힘이 난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경순(58) 불자는 "다라니는 비밀 주머니이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 기쁨에 계속 찾게 된다"며 "오래 전에 범어사에 다라니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다시 기도 시간이 생기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할 수 있어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예진(64) 불자는 "다라니 기도를 하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듯한 환희와

다라니 만독, 회향 없는 기도
불자 신심 고취 위한 자리로
매월 둘째 주 월·화 오후 7시
"근기 맞는 수행법 배워가길"

기쁨을 맛본다"며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찾아와 기도를 한다. 지금 만독 불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다라니 만독 회향일을 묻자 범어사 원주 석경 스님은 "회향일은 사실 정해진 바 없다. 만독 불사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스님은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하면 대략 50회 정도 다라니를 하게 된다. 이틀이면 100회 정도 인데 십년이면 만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끝없는 정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범어사 다라니 만독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이 매서운 겨울 추위도 잊고 다라니 기도 정진 중이다.

범어사 다라니 정진 기도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설법전에서 마련되며 참가방법은 기도 시간에 맞춰 설법전을 방문해 참가비를 내면 된다. 참가비는 매회 만원.

한편 범어사는 새로운 신행 바람이 연이어 불고 있다. 최근 다라니 기도와 아울러 관음전 천일기도도 새롭게 시작했으며,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도 열리고 있어 매월 초하루마다 대강백의 법문을 만날 수 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금정총림이자 화엄도량으로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불자들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스님은 "한국불교는 통불교로 선과 율학, 기도, 교학 등 다양한 수행법을 수용한다. 화엄사상도 통불교적 사상으로 나누고 분별함이 없다"며 "범어사는 화엄도량이자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이다. 다라니 기도도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자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성장하도록 도량을 열어 맞이하는 것이 소임 맡은 스님들의 역할이다. 각자 수행과 역할에 잘 전념해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통일 위한 소통의 장 열어야"

부산 민추본, 10차 강연회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관성적인 대북인식에 혼란을 안겨주고, 다른 측면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12월 5일 민추본 부산지역본부 10차 강연회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정창현 서울대 외래교수(현대사 연구소장)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에 대한 이해, 다름과 변화 그리고 만남' 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소통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체제와 이념을 강요하며, 싸움을 통해 상대를 흡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의 길, 함께 경제성장을 모색하는 선택을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의 지름길을 위해선 막힌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준비된 만남으로 시대 흐름과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연회에는 본부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정관 · 지일 · 진효 · 진각 · 능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 송년을 지역 나눔음악회로

대구 해운정사, 12월 3일 송년회 · 화합음악회

정진 · 나눔 · 실천도량인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가 12월 3일 경내 1층에서 제8회 송년회 및 화합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과 (선)승가회 스님, 일심비구니 스님 및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문희갑 前대구시장, 윤욱 달서구노인복지회 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대는 14명 신도들이 육법공양을 올리고, 영산합창단 축가곡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에 이어 프리소울 앙상블 4중창과 관음회 하모니로 장식했다.

주지 청명 스님은 개막식 인사로 정몽주의 국화시 한 편을 낭독한 후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생각하며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법 따라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하고, 부처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푹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년회 및 화합음악회서는 해운정사 신도회가 달서구 송현동 지역, 소외이웃에 150여만원 성금을 송현동장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군 · 경과 이웃 위한 나눔의 茶

부산남구불교聯, 제5회 자비나눔 일일찻집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젊은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이웃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담겼다.

부산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2월 3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5회 군 · 경 포교와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일일찻집을 개최했다.〈사진〉



일일찻집은 군인과 경찰 등 젊은 불자 포교를 위한 지원금 마련뿐 아니라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돕는 중심처가 됐다. 매년 남구불교연합회원 스님들과 신도 대표 등 불자들이 하나 되는 자리로 참가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을 비롯해 불자들이 발길을 이었다.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은 "정유년을 마무리 지으며 자비나눔으로 사바세계를 아름답고 청정하게 가꾸고자 일일찻집의 소연(小宴)을 마련했다"며 "오늘 행사 수익금은 미래 불교를 책임질 젊은 군 · 경 포교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옥천암, 자비의 쌀로 남구지역 훈기 더해

1080kg 전달, 경로잔치도

부산 옥천암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옥천암(주지 대각)은 12월 2일 옥천암 경내에서 자비의 쌀 1085kg을 지역민에게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 전달식과 함께 산신제 및 경로잔치도 열어 훈훈함을 더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이 쌀과 음식은 모두 신도님들의 공양 정성으로 마련됐다"며 "이렇게 자리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향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문화관광특구 중구를 佛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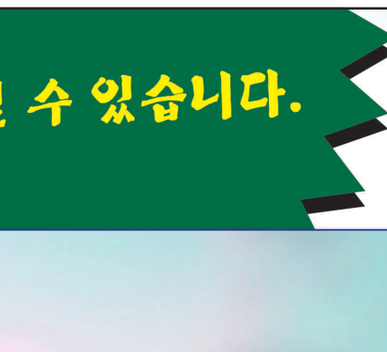
부산중구불교연합회 공식출범

관광특구이자 상업 중심지인 부산 중구 지역에 불교연합회가 출범했다.

부산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12월 6일 미타선원에서 '부산중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는 중구불교연합회 회장 임명장 수여 및 인사,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또 소속 사찰 및 임원진 소개, 축사, 법문이 이어졌다.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심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및 김은숙 부산중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종호 스님은 "풀뿌리 불교조직을 견고히 하기 위해 중구불교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 지역구 불교연합회의 발전은 곧 부산불교연합회의 발전이며, 크게는 한국불교 중흥에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한다"면서 "부산 중구는 지역 특성상 원도심이자 관광특구이다. 젊은이와 함께하는 연등문화제를 열고 젊은 불교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오른쪽)과 중구불교연합회장 종호 스님(왼쪽)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 16개구 가운데 중구는 중심지였다"며 "중요 지역에 연합회가 정식으로 창립되고 법회가 여법하게 열려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부산시 중구는 50만 명의 생활인구가 운집하며 국제, 연안여객부두, 부산역이 인접해 있어 부산의 관문역할과 국제화의 전초기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자갈치, 국제시장이 위치한 문화관광 중심 지역이다. 중구불교연합회에는 지역 내 8개 사찰이 등록했다. 앞으로 소속 사찰은 젊은 불교를 선양하고 상가 상인 및 외국인 포교를 위해 불교문화축제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소속 사찰은 고심정사(주지 일성), 미타선원(주지 종호), 대각사(주지 경우), 수도암(주지 거산), 정수사(주지 일준), 용해선원(주지 혜덕), 일성사(주지 법령), 칠성암(주지 정원)이다. 임원은 고문 원택 스님(고심정사 회주), 회장 종호 스님, 수석부회장 일성 스님, 부회장 일준 스님, 감사는 거산 스님이 맡는다.

지난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복로연등문화제를 위해 고심정사, 대각사, 미타선원, 정수사가 함께 동참했다. 이후 2017년 '중구불교연합회' 창립이 제안됐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했다. 2017년 4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8개 사찰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가 봉행됐다.

한편, 중구불교연합회 창립으로 부산 16개구 가운데 15개구가 창립됐다. 부산 서구에서 연합회가 창립되면 모든 지역구 불교연합회가 완성된다. 하성미 기자